

考古美術資料 第十五輯 續金石遺文에 『南原 鄭嶺峙磨崖佛』이라는 이름으로紹介되었다.

그러나 이 銘文은 調査 때가 十一月의 추운 겨울이었고 더구나 눈이 쌓여서 淸澈한 調査가 못되었으므로 이번엔 다시 踏查를 實行한 결과發表된 銘文에 誤字가 있었고 磨崖佛도 八軀가 아니라 十軀이며 다른 두 곳에 銘文이 더 있었음을 찾아냈다. 그러나 刻文한 岩石이 水成岩인데도 千百m나 되는 高原地帶이므로 風磨가 甚하여 刻文 全體를 判讀하기가 艱고 陰刻된 곳이 岩石 틈틈을 이용했기 때문에 縱橫이 一定치 않다. 刻자의 크기는 대개 縱二十四cm 橫十四cm이다.

I 世田?

明 月智佛

II

天普十王世人而

□□

師士?

III

十佛□滅陀羅尼

路□他惡普魯伽惡普

□□□阿明伽日和帝比

是□□□白阿衍

跢他伽跢

□提□訶

二

淨蓮堂碑銘은 實相寺에서 深原 골짜기로 四十里쯤 올라가는 도중 半仙庵이라는 마을에 있다. 이 碑銘 앞에는 두개의 浮屠가 있었다고 하나 五年前에 未詳의 商人이 차에 싣고 갔다고 한다. 비록 浮屠가 없어지긴 했지만 碑文으로 보아 妙蓮堂과 淨蓮堂의 浮屠로서 두 사람은 夫婦였으

며 그 아들이 浮屠와 碑를 세웠다. 이 半仙 마을엔 本來 半仙庵이라는 寺가 있었다고 한다. 筆者가 三年前에 踏查했을 때 寺址 우물에서 乾隆三年重修라는 黑筆의 나무토막이 나온 것을 調査했다. 이로 보아 淨蓮堂과 妙蓮堂은 半仙庵과 관계되는 人物들이며 半仙庵은 李朝 中期에 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碑幅 三五cm 碑高 六五cm 屋蓋高 三十一cm
表面

淨蓮堂碑銘并序

妙蓮堂法天月城鄭氏淨蓮堂法性密州朴氏也顯此兩人人間配偶出世道友也妙蓮乾也秘寶而先西淨蓮坤也現靈而後逝有比勝事何可泯沒其子惠安亦有孝沙門欲立淨蓮塔

陰面

以示後故散人慙冠讀其美爲作道號以記焉 銘曰

翁兮婆兮 一秘一現 方文山高兮

法海爲慈 卽俗卽眞 其趾曷有其已

乾隆十四年己巳三月建 雲巖字觀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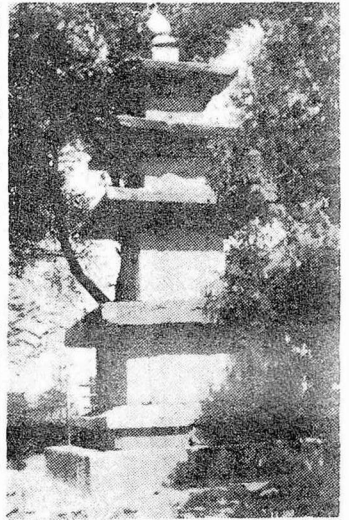
서울市內에 移建된 石塔 三基

金 禧 庚

近來 地方에서 서울市內로 搬入되어 移建된 石塔이 數基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社稷公園三層石塔(其一)

基壇…… 높은 地臺石 위에 二層의 基壇이 마련되었는데 下層基壇面石과 甲石이 一石造로서 四枚石으로 되었음이 特徵이라 하겠다. 上層基壇



面兩隅에 隅柱가 있는 二枚石 사이에 面石 一枚를 嵌入하였는데 甲石은 매우 두껍고 上面에 二段의 屋身과 隅柱가 있다. 塔身……三層까지 屋身과 屋蓋가 各一石으로 되어있고 屋身

各面엔 隅柱를 마련하였으며 屋蓋石은 平薄하며 屋身에 比하여 매우 넓은 편인데 上面에 一段의 괴임이 있다. 屋蓋받침은 各層이 四枚씩이며 相輪部는 露盤 위에 一輪과 寶珠를 一石造로 하여 얹었다.

實測值(單位 cm)

地臺石	下基	上基
長二二〇	甲石長 一六五	甲石長 一七二
高二八・五	厚 一〇	厚 一八
	面石高 一八	面石高 六〇・五
	隅柱幅 一九	面石幅 一二四
屋身高 및 幅	隅柱幅	屋蓋石長 및 처마 露盤高
一層 六七・五	一七	寶珠高
二層 三三	六一・五	一四七
三層 二七・五	五三・五	一一七
	一〇	九
		八・五
		六・五
		九五
		總高 四三四・〇

二、社稷公園石塔(其二)

單層基壇위에 現在 四層까지 남아 있다. 基壇……各面에 隅柱가 있는 二枚石 사이에 二枚의 面石을 嵌入하였는데 甲石은 平板같으며 二枚石으로 되어 있는데 上面에 蓮華를 各面 五씩 計二十枚를 마련하여 屋身과 隅柱의 괴임으로 한 것이 이 塔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副椽이나 彫飾같은 것은 없다.

屋身……各層 屋蓋와 屋身이 各一石으로 되어 있고 屋蓋받침도 各四段이다. 屋蓋石은 隅角에서 反轉이 甚하고(특히 四層) 各層 四隅에 風鈴을 달았던 孔에는 아직도 鐵片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屋蓋裏에는 水溝를 마련하였고 처마 밑과 屋蓋받침 사이가 腹形으로 되었으며 四隅에 굽은 稜線을 마련한 것도 異色이라고 하겠다. 石質이 좋고 대체로 細長한 感이 있다. 兩塔은 麗塔으로 推定되나 三層塔쪽이 時代가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全羅道地方에서 搬入하였다고 하나 確實하지 못하다.

實測值(單位 cm)

地臺石下	上	基壇	面石
長 一八〇	長 一三七・五	甲石長 一三三	高 五五二
地上高 七	高 一四・五	厚 八・七	幅 八〇・五
		隅柱幅 一五・五	
屋身高	幅	隅柱幅	屋蓋石長 및 처마 露盤高 및 邊 寶珠高
一層 四八・五六二	一三	一一二九・五	一六三三 二八・四
二層 三三二	五五・五	一一	九九・五九
三層 一三三・五四九・五	一一・五	八三八・五	
四層 一四・五三四	一〇・五	七九・五八	
		總高 三七三・〇	

三、退溪路花園內石塔(其三)

大韓劇場 옆 花園內에 三層塔이 搬入되어 있다. 基壇……現在 한層의 基壇面石까지 남아 있고 그 以下는 없는 데 花園 主人의 말에 依하면 原所在地에서 搬入時 버려두고 온 것 같다고 하는데 가져온 곳이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面石은 兩隅에 隅柱가 있고 撐柱一本으로 兩分한 二枚石을 嵌入하였다. 甲石은 一枚石이고 下에는 副椽이 있다. 上面엔 二段의 물딩과 水溝가 마련되었다.

塔身……兩隅에 隅柱가 있고 屋蓋石과 屋身이 各一石인데 三層塔身은 他塔材인데 石質이 좋지 못하다. 屋蓋石받침은 各層四段씩이고 屋蓋 上面엔 若干 높은 一段의 角形과 隅柱를 刻出하였다. 一、二層 屋蓋裏에는

水溝가 마련되었고 落水面 勾配는 急한 편이다. 羅塔樣式을 充實히 따르고 整然한 感覺을 주는 塔으로서 麗代中期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實測值(單位cm)

基壇	隅柱幅	甲石長 및 처마	副緣
幅 九〇・五	一一・五	長 一一九・一	長 一〇三・五
高 四二			高 四四・八
屋身高 및 幅	隅柱幅		屋蓋長 및 처마
一層 五五・五 五五	一一・五	八七	一〇・五
二層 一九・八 四五・二	一〇・五	七八	一〇
三層 一一・五 三五	五五	五	
		現總高 二六一・〇	

資料

崇巖山聖住寺事蹟

聖住禪院者本隋陽帝大業十二年乙亥百濟國二十八世惠王子法」王所建烏合寺戰勝爲寃魂願昇伏界之願刹也時藍浦羣賊起劫令伙俱存第屋可新羅太宗大王八代孫大朗和尚無染國師唐德」宗貞元十七年十二月二十八日午時誕生年至十有三宿習冥感求出三」界父母俱許大唐憲宗元和八年投雪岳山法性禪師剝落頓悟□」禪宗入大唐麻谷山謁寶徹乃江西馬祖道一禪師之上尼也染師初謁」道契印可直傳心印道播天下周流二十餘載矣遇會昌五年乙丑」沙汰勅外國禪僧各還本藩命漂州觀使載艘食牒護送到海州」連水縣便值本國內面繫纜光州錦城郡新羅第四十六世文聖大」王聞師還命國人相慶曰連城壁後還天家爲之地有達也」即賜手教」親迎掖宮君夫人世子羣公子公孫環仰拜爲國師自是請益者所」至稻麻矣唐宣宗大中元年丁卯冬十一月十一日至烏合寺其夜雪下半」腰假住數日僧裕寂梵行志崇三人先居之固

請住止文聖大王亦遣」宰相魏斯泰所請居因住錫焉惠和尚才高德重無爲而化不言」而信藍浦群賊輒湊請益和尚猶鍾待叩似鏡現形以慧焰導其」目法喜娛其腹由是群賊遷善改過出家得道者百餘人文聖大」王頻降神筆曰熊州是海隅邊塞人性凶傲朕篤畏不服禪師既」爲佛法雄秀道德堪任人自行善朕喜充抱請禪道爲國鎮坐茶」香信物四時連還因勅下曰烏合寺禪師所居誠可尊儼宜爲寺額勅」賜聖住禪院山曰崇岩斯乃曰師道也改創選法堂五層重閣三千」伏殿九間海莊殿九間大雄寶殿五間定光如來殿五間內僧堂九間」極樂殿三間文殊殿三間觀音殿五間遮眼堂三間十王殿七間稱檀林九間香積殿十間住室七間井閣三間鍾閣東行廊」十五間西行廊十五間東西南北間各三間鍾閣二層中行廊三百間破」外行廊五百間破基階猶存水閣七間破庫舍五十間破矣東西都統巡官賜紫金魚袋崔致遠所撰碑」一翰林郎阿湊金立之所撰碑一破釋迦如來舍利塔定光如來舍利塔迦葉如來舍利塔藥師如」來舍利塔四塔點青山雙撐翠碧大朗和尚白月光塔安于西麓毘」盧遮那伏一大尊像三千伏相安于三千伏殿此三千伏尊過去莊曰劫」一千伏現在賢劫一千伏未來宿星劫一千伏三劫三千伏乃文聖大王造成願」伏也是利也乾坐巽向歸元水破疊嶂帶海長峯回抱千峰壁立萬壑」朝宗大州前統東枕古師津南距藍浦西臨天池北背保寧縣祖元白」頭山聯來實鷄林之名山馬韓之跡壤也王大祖統合三國時金傳大王治」海西來傷嘆曰大朗惠和尚同祖聖骨也聖住禪院乃先祖所建願刹也率」宮奴來居之王太祖以公主處之賜爵土田奉饋三道食邑金傳大王終身」于茲陵基靈祠今在山頂矣自文聖大王歷憲安景文王憲康王至金傳大王十一代也

(註記)

이一文은 求禮 華嚴寺 前任持 鄭寒憲 老師가 손수 集錄한 한국寺刹史料관계 寫本一册 初頭に 실려 있다. 蒐集의 경위나 出典 그리고 年代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新羅聖住寺의 前身을 百濟烏合寺라 한 것이나, 大小伽藍의名稱과規模 奉安佛像과 現存石塔 計四基의名稱, 崔致遠撰 朗慧碑以外에 破碑①一基를 翰林郎 阿湊 金立之撰이라고 한 것, 朗慧白月葆光塔의 西麓安置나 金傳大王의 陵基靈祠 등 앞으로 同寺址考察을 위하여 매우 貴重하다. 鄭老師는 日政期「智異山大華嚴寺誌」一册(寫